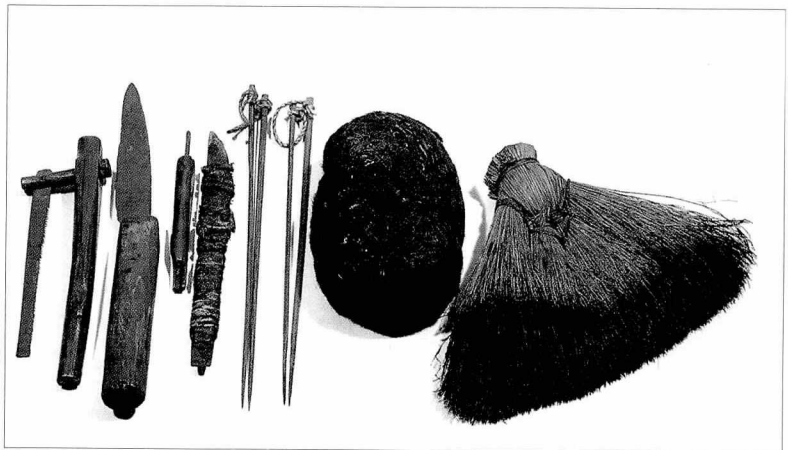


‘목활자’

이렇게 만들었다



◆ 목활자 주조 도구들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뿐만 아니라 목판인쇄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현했다. 751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목활자는 신라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주고인쇄박물관과 도서출판 '직지'의 자료협조를 받아 목활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 졌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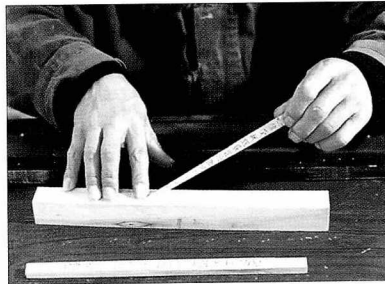


1. 나무준비, 닥등질

활자를 만드는 나무는 재질이 연하면서도 오래 견딜 수 있고, 먹물 흡수가 좋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면 모두 가능하다. 황양목을 위주로 박달나무와 들배나무, 산벚나무, 자작나무 등이 사용되었다. 나무를 비닷물에 담그거나 민물에 일정기간 동안 담가 나무의 진액을 빼고 결을 삭혀 글자를 새기기 쉽게 한 다음 통풍이 잘 되는 음지에서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시일이 짧을 경우는 처리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먼저 적당한 두께의 목판으로 켜 다음 물에 담가 진을 빼고 결을 삭혀 건조시킨다. 활자를 만들기에 적당한 크기의 나무판자로 켜서 글자를 새길 면을 대패질을 하되, 그 높이를 새기고자 하는 활자크기의 각목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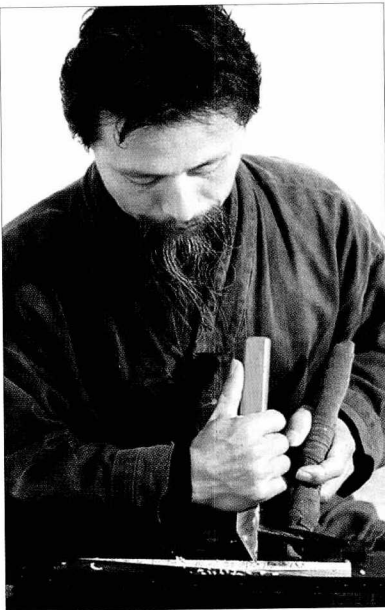
2. 지본작성

지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수서, 모사, 판본 등이 있다. 수서의 방법은 유명 인사나 서예가에게 부탁하여 서사한 글자를 지본으로 선정하는 경우이다. 판본의 방법은 이미 간행된 각종 서적의 판본이나 원고 작성자의 정서본에 나타나는 글자를 지본으로 선정하는 경우이다. 지본을 선정하고 나면 인출하고자 하는 서적의 저작내용에 따라 선정된 지본에 맞게 지본을 제작한다.



3. 붙이기

준비된 지본의 전면에 풀을 발라 이를 각목 뒤에 뒤집어 붙인다. 판면을 고르게 하고, 건조가 다 된 각목에 지본을 붙인다. 지본의 전면에 풀(참쌀풀)을 발라서 판면 위에 얹어 붙인 뒤 그 풀이 건조한 다음에 각자를 한다.



4. 새기기

뒤집어 붙인 지본의 비쳐 보이는 반대 글자체의 획이 볼록 나오게 1자씩 새긴다. 동일한 글자는 필요한 만큼의 숫자로 만들어 내며, 특히 조사 등과 같이 많이 쓰이는 글자는 10여벌 정도 새겨두는 것이 좋다. 지본을 각목에 붙인 다음 그것이 건조되면 각자한다.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활자조성 목재나 활자의 날날을 각자용 틀에 고정시켜 새기는 방법과 지본이 붙은 각목을 잡고 임의로 판각하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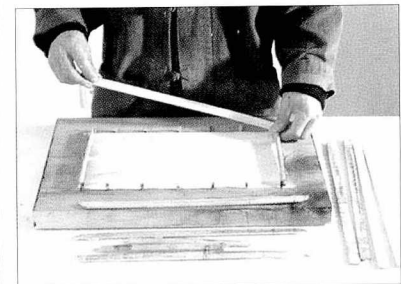
5. 인판틀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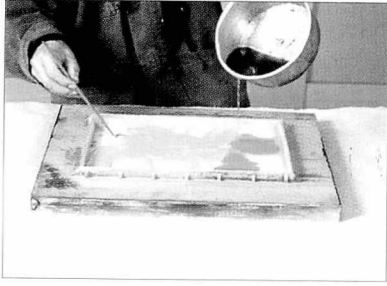
대개 30cm×50cm정도 크기와 두께 3~5cm정도의 목판 위에 축편으로 광곽을 적당하게 고정시킨다. 그 깊이는 사용하는 활자의 높이 보다 약간 깊게 만든다. 이와 같은 목판을 인판(속칭 밀판)이라 부른다.



6. 광곽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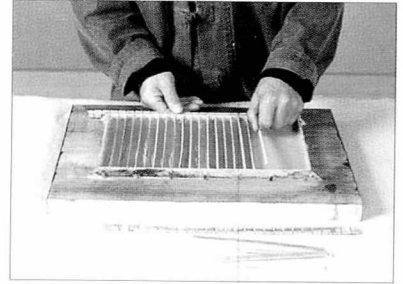
인판에 광곽이 고정되면 상하에 눈금자를 대고 그 눈금에 따라 계선을 넣는다. 행과 행의 계선은 축편으로 만들고 판심에는 이미 판심제 그리고 권차 장수표시를 한다.





7~8. 밀납붓기와 계선깔기

인판위에 계선을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식자를 위한 인납을 끓여 넣는다. 인납은 밀에 불건성유인 피마자 기름을 넣고 열을 가하여 녹진녹진하게 만든 밀을 말한다. 인판에 인납을 넣고 그 인납의 면을 고르게 만든다. 인납이란 밀을 가공하여 활자를 고정시키는 조판용 밀을 말한다. 후기 목활자 인쇄는 거의 다 부착식이었기 때문에 인납을 사용했다. 이것은 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건성유나 반건성유를 섞어서 가공하여 연도 점도가 적당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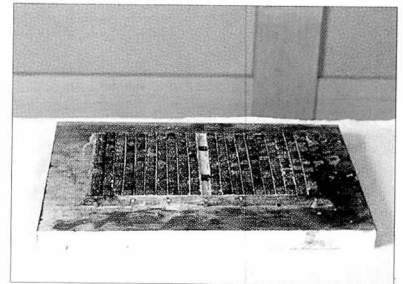


9. 활자배지

활자 보관상자에 있는 활자를 죽저로 주어서 출판하고자 하는 원고의 글자위에 당해 활자를 놓는다. 식자는 원고위에 놓아진 활자를 그 원고 순서대로 인판에 활자를 심는 작업이다. 식자수는 오른손으로는 대칼을 잡고 그것으로써 주어진 활자를 붙일만하게 인납을 비스듬이 한 면을 떠올리고 왼손으로 활자를 주어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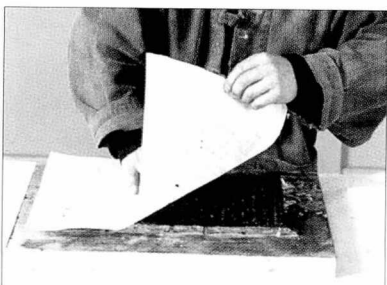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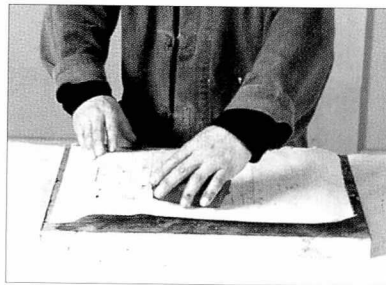
10. 먹물만들기

먼저 먹을 분쇄하여 물속에 넣고 일주일쯤 지나면 저절로 풀어진다. 이때 먹을 만드는 집에서 인쇄용으로 만든 먹을 '동먹'이라고 부른다. 각수 권재희씨의 말에 따르면 송연이나 유연으로도 먹을 대신하여 쓰기도 한다.



11. 먹물에 술타기

인쇄할때 먹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술(주로 탁주)을 타서 사용한다. 인쇄할때 적당한 양을 다른 그릇에 담아 두고 술로써 그 먹물의 농담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술 즉 탁주를 타서 써야 인쇄된 글자에 먹물이 골고루 안착되어 깨끗하다고 한다.



12. 인판에 먹물바르기

먹솔로 먹물을 문혀서 인판의 활자위를 인쇄에 적당하도록 바른다. 인판위에 먹물을 바르는데 쓰이는 솔을 '먹솔'이라고 한다.

13. 인쇄 후 보관

완성된 활자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활자 보관함에 장치하고 조판에 대비한다.